

21

장대에 달린 뱀뱀

민 21:4~9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찬양 92장 (주만 바라볼지라)



1. 교회 안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심판을 초래함을 압니다.
2. 구원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임을 압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 21:7~9)



을 이해하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요청했으나 에돔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에돔 땅 통과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멀고 척박한 남쪽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칠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되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민 21:5)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뱀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써 불뱀에 물린 자들이 뱀뱀을 바라 봐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의 독에 쏘여 죽게 된 영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봄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4~15)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4~15)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뱀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민 21:4~9).



구분	뱀뱀 사건
원인	
결과	
해결책	

2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뿔뿔을 쳐다보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뿔뿔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정리해 봅시다.

3

뿔뿔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여 적어 봅시다(요 3:14~15, 고전 1:18)

4

구원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요 5:2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이

요 6:3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고전 1:18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갈 2:16

↓

갈 2:20

↓

갈 3:26

↓

엡 2:4~5



도피성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두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특히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이 중 여섯 개 성읍이 도피성이었습니다(민 35:6). 그러면 이런 도피성을 왜 만들었을까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살인자가 죽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죽일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피값으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숲에서 나무를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맞춰서 죽게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신 19:5~7).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습니다(민 35:16~28).

일단 도피성에 살인한 사람이 들어오면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 단계에서,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성문 앞에서 자기의 사고를 설명하고, 성읍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 성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단계에서, 도망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이때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인정 되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본래의 지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수 20:3~6).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으로 각각 세 성읍씩 여섯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든지 걸어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죄지는 사람을 도피성으로 받아들였듯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피의 보수자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을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하루만에 갈 수 있는 거리로 있다는 것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질문 있어요~



이적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구약성경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십자가에 넘겨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적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또 놀라운 역사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고전 14:22)

이적을 행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막 16:20)

또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사도들이 안수할 때 특별히 성령 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하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 두 사람쯤 되니라 (행 19:2~7)